모항해나루가족호텔 숙박요금 '불만'

성수기 기준 1박 가격 36만원 · 복층 77만원까지 받아 바가지 요금 비난

2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로 건립된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이 도민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데다 숙박요금도 지나치게 비싸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개장 당시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아무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북개발공사가 겉으로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을 표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수욕장에 도비 240억원을 투자해 객실 112(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난 2012년 개장했다.

개장당시만 해도 연간 체류형 숙박객 증가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편익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전문위탁경영회사와 책임경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가격과 할인율도 위탁회사가 제시한대로 공고하면서 숙박요금을 성수기(7월 15일~8월 말) 기준 1박 가격(24평형)은 36만원, 복층은 77만원까지 받고 있다.

여름 성수기 시 2박3일을 이용하려면 최소 7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다.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인근 콘도와 펜션 등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인근 대형콘도에 비해 시설 및 서비스 등이 뒤쳐진데도 이 같은 비싼 가격을 받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도민의 혈세를 투자한 숙박시설임에도 도민을 위한 할인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안군민에 대한 혜택도 없어 부안군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인근 대명콘도는 군민들에게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공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지역상생에 인색하며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위탁사와 책임경영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숙박과 시설에 대한 가격책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역사회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인근 대명콘도는 회원권을 많이 발행해 일정부분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해나루는 회원권을 37구좌만 판매했기 때문에 시설투자금 회수가 안 돼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며 "오래전부터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는 5월 경 위탁회사 재선정 과정에서 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할인혜택 부분을 명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 추진계획 보고회

전북농협은 14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범농협 상생발전을 위한 시너지 활성화, 농.축협 균형발전을 위한 지도.지원사업 강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 2013년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해 전북의 위상을 강화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 청년여성농업인 찾아 격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지난 13일 농촌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농협중앙회는 청년 여성농업인 발굴을 통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청년 여성농업인 CEO 중앙연합회(이하 청여농)'가 출범했으며 유지혜(김제시 진봉면, 30대)씨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돼 활동하고 있다.

도내 청여농 회원으로는 유지혜 회장을 비롯해 강보람(김제 공덕, 20대), 강다은(김제 광활, 20대), 권수현(남원, 20대), 권태경(남원, 20대)씨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지혜 회장은 가족과 함께 8만여평에 달하는 농지를 경작하며 본인이 농사지은 쌀과 밀로 빵과 쿠키, 케익을 만들어 '바람난 농부'라는 브랜드로 판매해 농업의 6차 산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여농 유지혜 회장은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식생활 교육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귀농.귀촌인들의 모범사례가 되고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 활성화에 희망의 바람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전북농협도 청여농 여러분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채용 경쟁률 340:1 기록

9208명 지원… 30% 전북출신 지속 채용

전북대표 기업인 이스타항공이 2017년 상반기 진행한 객실승무원 채용 경쟁률이 340대1을 기록하면서 이스타항공 입사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2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객실인턴승무원 공개채용' 서류마감에서 총9,20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전문직종사자, 언어특기자, 해외거주경험자, 항공업경력자 등 기졸업자와 경력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남성객실승무원들(스튜어드)을 희망하는 지원자들도 또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지역 할당을 통해 30% 정도의 인원을 전북출신으로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이번 채용 모집에도 지역 인재 채용을 진행 할 예정이며, 잡영 챌린지, 지방현장 면접제도 등 지역 내 인재 채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내안전보안 강화를 위해 남성객실승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이스타항공은 현재 총370여명의 객실승무원 중 55명의 남성객실승무원이 근무하며 항공기 안전보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객실인턴승무원 서류합격자들은 2~3월 중 1~2차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4월 입사 후 약12주간 이론 및 실습 교육 후 운항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상반기 일반직,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지난 5일 마감한 일반직 모집에도 30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채용 중 운항승무원(신입부기장) 채용은 3월 15일(수)까지 진행되며, 채용 마감 후에는 수시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항승무원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채용 홈페이지(recruit.eastarjet.com)에서 확인 및 지원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신용보증기금,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1등급)을 획득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체 266개 평가기관 중 금융공기업으로 신보를 포함한 2개 기관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보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청렴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반부패.청렴의 달 운영,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 등 다양한 활동결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변화의 동기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융공기업 중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등급이 상승한 유일한 기관이 됐다.

신보 관계자는 "최우수 등급은 전 직원이 평소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렴생태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부패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기관으로 신보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활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016년 가을에 착수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8개 지구를 올해 7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지구획이 작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필지규모가 작은 농지를 대형 농기계 영농에 맞도록 대구획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는 김제 3지구, 나머지 부안, 군산, 익산, 고창, 정읍에 각각 1지구가 있다.

8개 지구의 경지면적은 644ha로,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불규칙한 농지,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규모화.현대화 영농에 알맞게 정비해 안정적인 먹거리 창출과 농어촌 환경이 개선되면서 농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시로 지역 주민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정진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 중소기업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이 15일 오후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가능성에 따른 대책과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응 가능한 정책금융 및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적절한 연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 본부장은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존스미디어(주)와 픽스테아(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 및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정책 지원 사업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